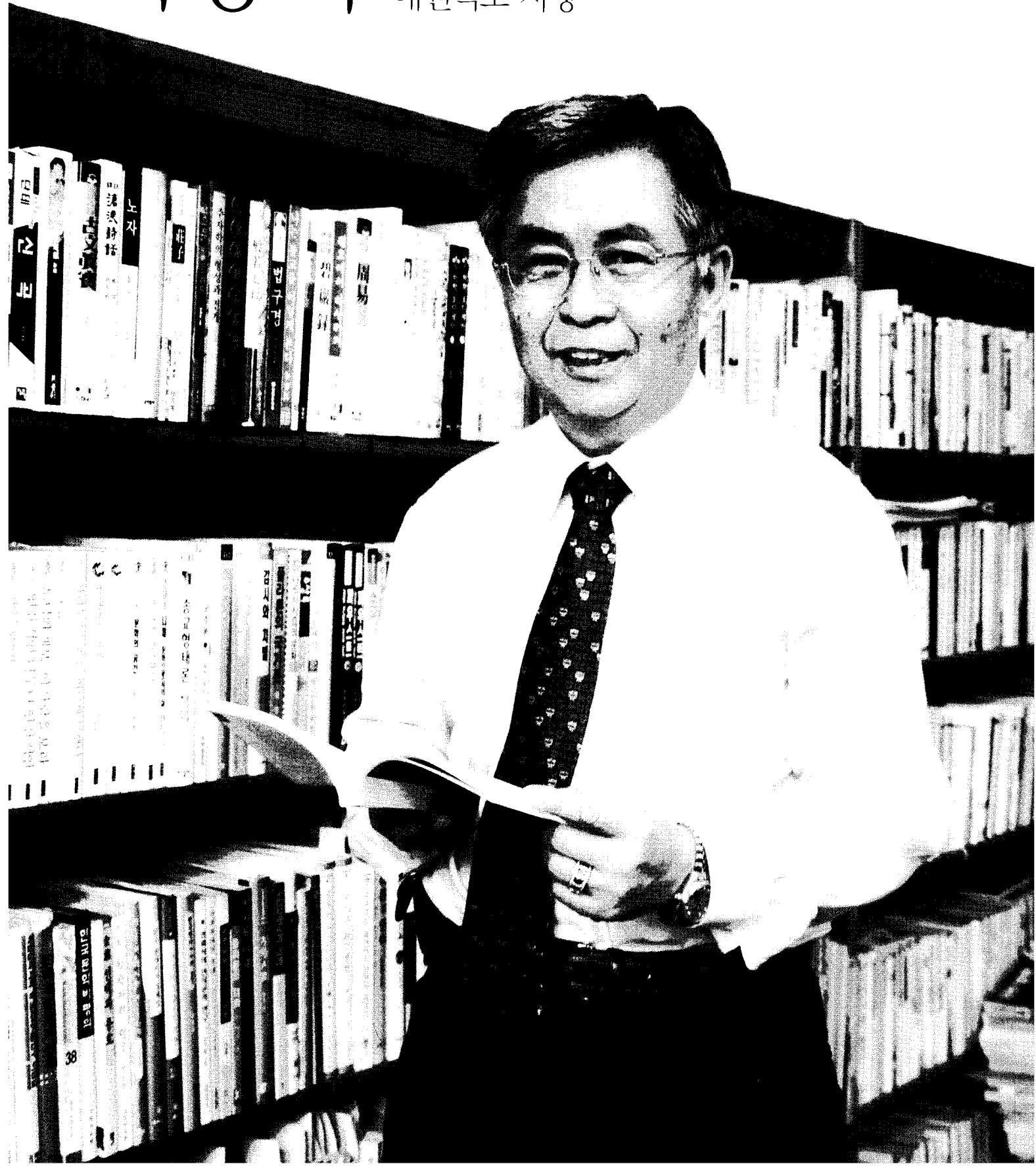


안료회사 운영하며 시인으로 활동, 최근엔 오프셋 잉크 개발해 화제

박종국

대원색소 사장



“색의 세계에는 우주와 道가 들어있어요”

안료를 처음 접한 계기는 무엇입니까?

제가 이 일을 처음 시작한 계기는 증조할아버지(당시 충북 괴산 현감)께서 일본군들에 의해 돌아가시면서 부터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아버지께서는 자식들에게 공부를 시키지 않으시려고 하셨습니다. ‘공부해서 출세하면 일찍 죽을 수 있다’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육사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제 생각으로 예전에 할아버님의 영향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 후 명지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첫 직장인 안료회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다닌 곳은 삼진안료(주)란 회사로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때 당시 연구소에서 1년간 교육을 받은 후 영업부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30대초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7남매 중 장남인 제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 두고 안료대리점을 6~7년간 운영했습니다.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 된 이후 제가 가진 기술로 안료를 직접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1981년도에 을지로에서 대원색소란 이름으로 회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전의 안료시장과 지금의 우리나라의 안료시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1959년 부산소재 덕영색소(德永色素工業社)가 산화철을 비롯한 황연 등 무기안료를 생산하다가 1960년 초에 대한색소공업 주식회사(大韓色素工業株式會社)로 개명함과 동시에 일본으로부터 유기안료 제조기술을 도입하여 아조(Azo)계의 적색 및 황색안료의 생산을 시작으로 프탈로시아닌(Phthalocyanine)의 청록색안료까지 생산하게 된 것이 우리나라 유기안료 생산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국내외적으로 도료, 인쇄잉크, 플라스틱 등 관련분야의 산업발달과 더불어 각종안료의 소비가 증가하는데 힘입어, 하루가 다르게 급성장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몇 개의 안료업체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 많은 향상을 보여 안료공업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 산업발달에 힘입어 국내의 유기안료 생산업체들은 일본, 스위스 등 외국의 관련업체의 선진기술을 받아들이거나



박종국 대표가 최근 개발한 매염용 오프셋 잉크(제품명- 은하수)를 선보이고 있다.

자본합작 등을 통해 양산체제에 돌입하여 명실공이 정밀화학공업의 한 분야를 차지하는데 손색이 없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 들어와서 세계의 급속적인 수요에 따른 것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그 사정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유기안료의 생산량과 그 수요량 면에서 아조(Azo-질소 함유)계와 구리(Cu)-프탈로시아닌계는 국내의 수요를 충족시키고도 남아, 상당량을 세계 각국으로 자체의 품명이나 OEM방식으로 수출하고 있었는데 2000년 중반부터 인건비의 상승 및 환경처리 비용 등의 원가상승으로 인해 경쟁력이 약해지면서 대한스위스 화학(주)와 송원클라리언트(주) 등은 외국계 자본으로 완전히 넘어 가면서 국내 안료산업은 판도가 달라지고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및 인도 등지로 이 분야의 산업이 옮겨가는 추세입니다.

기술개발 분야에서 일하실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입니까?

저희 회사는 보통 15~20년 근무한 전문기술자들이 자체적으로 직접 연구하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저희가 만든 제품엔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판로가 그리 쉽지 않은 았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관련업체를 찾아다니면서



1 박중국 대표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
2-4 회사내에 설치된 연구실에서 안료를 혼합해 잉크를 만들고 있는 모습
5-6 최종 검사를 한후 잉크를 만들어 내고 있는 모습

영업을 했습니다. 물론 거절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안료만큼은 국내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을 정도로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잉크회사 대표와 기장이 보는 앞에서 직접 시범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노력이 결실을 맺어 지금의 대원색소가 탄생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 더욱더 나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료업계의 소비량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국내의 안료 소요량도 관련된 분야의 소비량 증가로 다소 늘어남과 동시에, 고급안료의 사용량도 늘고 있습니다. 고급안료는 우선 가격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물성 면에서의 장점 때문에 양적인 면에서 수입이 늘고 있지만, 국내 안료업계에서는 원료 공급문제 및 생산비의 과다지출 등 대체안료의 개발은 어려운 국면에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안료공급과 수요 면을 놓고 보면 국가별 안료의 분업화가 이뤄지고 있는 듯 느껴지는데, 그런 이유는 유럽의 선진 공업국들이 환경문제, 인건비 등 제조에 미치는 원가문제 등을 포함해 채산성이 맞지 않아 다량 생산품은 제3국에 기술이전을 포함하여 현지합작 등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도 최근까지는 잉크, 도료 등의 공급국으로써 그 위치를 굳혀 왔었지만, 제반 여건 때문에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어 직접 생산 활동보다는 수입판매 내지 가공화에 더 치중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안료업계의 기술수준과 앞으로의 발전방안은 무엇이

라고 보십니까.

우리나라의 안료기술은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느 업체가 일본 회사와 유대를 잘하고 있는가가 성패를 좌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들이 기술을 완벽하게 전수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애를 많이 태웠고 한편으로는 그것이 자체적인 기술개발에 몰두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원료 구입과 기술 도입에 외화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체적인 기술이 없으면 생존이 어려웠습니다. 80년대 들어서는 기술력이 겸비된 고품질 안료가 생산되면서 2000년대 들어서는 친환경 소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면서도 고품질의 잉크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개발한 오프셋잉크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개발한 잉크는 매엽용오프셋잉크(제품명-은하수)로 오프셋 인쇄의 다색인쇄에서 많이 발생하는 미세한 입자와 잉크의 점도를 높여 블랭킷 덧쌓임 현상을 없앴으며, 인쇄 중에 잉크집 안의 잉크가 유동성 불량으로 잉크 롤러에 잘 전달되지 않고, 잉크 농도가 차차 흐려지는 현상인 퇴오름 현상도 없었습니다. 또한 최근엔 별색잉크 제조기술도 보유하고 있으며 품질 면에 있어서도 최상위권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안료회사의 장점을 살려 최대한 밝고 선명한 색으로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료는 대표님에게 무엇입니까?

27년간 오로지 안료와 함께 했습니다. 글썬요. 한마디로 표



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제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이 안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한 분야에서 30여년을 종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이 희망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회사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소위 '궁합'이 맞아가지요. 그리고 보면 저는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한 직종에서 30여년을 근무했으니 말입니다.

27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혹시 다른 일을 해보고 싶었던 적은 없으셨는지요.

저도 인간인데 그런 생각이나 유혹이 왜 없었겠습니까. 젊었을 때 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의를 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안료와 인연을 맺었기에 안료밖엔 몰랐습니다. 색을 좋아했고 그래서 안료가 좋았습니다.

직원들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회사가 외지에 있어 직원들의 작업 능률을 높이기 위해 회사 안에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숙사와 식당을 만들어 직원들의 편의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임금 부분에 있어서도 회사의 경영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고르게 분배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원들 개개인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성과를 높이게 하고 또한 직원들에게 회사가 잘돼야 본인들 스스로가 잘된다는 이미지를 심어 주고 싶었습니다.

인쇄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언급할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당경쟁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격경쟁을 할 때 최저점이 적자와 흑자의 분기점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쇄업계는 그런 기준보다는 무조건 일감 확보에만 치중하는 것 같습니다. 일차적인 원인은 업체가 많기 때문이고 물량이 부족한 탓이겠지요. 하지만 민주국가에서 창업은 막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결국 인쇄인 스스로 원가 이하의 수주는 절대 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실천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쇄업계에서 디지털시대에 맞는 인쇄기술자 양성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늘 인쇄는 종합과학의 결정체라 믿고 있습니다. 기계와 종이와 잉크와 디자인을 모두 아

우르는 첨단산업이 바로 인쇄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부응할 수 있는 인력양성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평소에 건강관리와 취미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직장 생활을 하다보면 취미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요. 저는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시를 씁니다. 한 30여년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엔 그냥 시가 좋아서 쓰게 되었는데 나중에 제가 평생의 업인 안료제조와 관련해서 수많은 안료 색을 보며 소재로 삼게 되었습니다.

시인 박종국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이 안정기에 접어든 40대 중반부터 문학과 동서양 고전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에는 '현대시학'을 통해 시단에 나왔고 2003년 첫 시집 '집으로 가는 길' (세계사)을 시작으로 4년 뒤 두 번째 시집인 '하염없이 붉은 말'을 냈습니다. 직업적 경험과 고전에 대한 지식, 삶의 철학을 농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시를 처음 읽어 보신 분은 어렵다고 말씀 하십니다. 그러나 안료 만드는 과정을 알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철을 태워 검정색을 얻으려면 섭씨 1200도 이상의 불로 태워야 하고 섭씨 700도에서 멈추면 노란색이 되고 섭씨 1000도에서 멈추면 적색이 됩니다. 그러니 색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 없이 움직이는 현상입니다. 이는 '변하는 것만이 변하지 않는다'는 노장사상에 맞닿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뭇잎 하면 초록을 떠올리지요. 그러나 계절의 흐름에 따라 연초록에서 진초록으로 변하고, 단풍이 썩으면 검정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안료 공장에서는 시시각각 변하는 색들을 보면 인쇄도, 자연도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인쇄잉크를 개발한 만큼 마케팅에도 신경을 많이 쓸려고 합니다.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하지 못하면 시장 지배력을 높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일 영입부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 좋은 잉크와 별색 등 우리만의 장점을 살려 인쇄문화사업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대원색소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대담·유창준 국장 | 사진·박성권 기자